

17세기 『史纂』 출판의 문화사적 의미

- 중국본의 유입과 변용을 중심으로 -

Cultural History of the 17th Century *Sachan* Publication

- Focusing on the inflow and transformation of Chinese books -

金昭姬 (Kim, So-Hee)*

< 목 차 >

- | | |
|--------------------------|---------------------------------|
| 1. 서론 | 3.2 명말 복고주의 학풍의 수용과 조선 고문학파의 영향 |
| 2. 중국본의 유입과 『사찬』의 간행 | 3.3 훈련도감의 서적 보급과 인쇄문화사적 위상 |
| 2.1 『사찬』의 출현 배경 | 4. 결 론 |
| 2.2 『사찬』의 편찬과 체제 | <참고문헌> |
| 2.3 중국본의 수용과 그 특징 | |
| 3. 『사찬』 간행의 출판문화사적 의미 | |
| 3.1 명간본의 유입과 독자적 텍스트의 제작 | |

< 초 록 >

이 글은 중국본의 유입과 변용 양상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1612년 훈련도감에서 편찬하고 간행했던 『史纂』의 출판문화사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사찬』은 17세기 초 이항복·조위한·이덕형·윤근수 등 정치·학문과 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인물들이 모여, 당대 중국의 학술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明刊本 『史記纂』과 『史記評林』의 탐독과 자기화 과정을 거쳐 조선식으로 탈바꿈한 서적이다. 이 책은 명간본의 유입과 독자적 텍스트의 제작, 명말 복고주의 학풍의 수용과 조선 고문학파의 영향, 훈련도감을 통한 서적의 보급과 인쇄문화사적인 위상에서 출판문화사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要語: 中國本, 史纂, 明刊本, 史記纂, 史記評林, 訓練都監, 出版文化, 李恒福

< ABSTRACT >

This study, which i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ystematization of the influx and transformation of Chinese books, examined the meaning of publishing culture history of *Sachan* which was compiled and published by Hullyeon Dogam in 1612. *Sachan* was a book which was transformed into the Joseon style through process of transformation by a group of people such as Yi Hangbok, Cho Wihan, Lee Deokhyung, and Yun Geunsoo with outstanding competences in politics, academics, and culture who read the Ming wood-block of *Sagichan* and *Sagipyonglim* that were reflecting the academics and thought of Chinese people at that time and transformed them to their own. This book can derive the meaning of publishing culture history from the inflow of famous books and the production of independent texts, the acceptance of the school style of the retro-modernism at the end of Myeong Dynasty, the influence of the ancient literature school, the dissemination of books through Hullyeon Dogam, and the historical status of printing culture.

Key words: Chinese book, *Sachan*, Ming wood-block, *Sagichan*, *Sagipyonglim*, Hullyeon Dogam, Publishing Culture, Yi Hangbok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ksh3725@hanmail.net)

투고일: 2020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9일
서지학연구, 제81집, 191-208,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1.191>

1. 서론

『사기』는 일찍이 삼국시대에 유입되어 중국 고대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서이자 작법을 위한 문장서 및 오락을 위한 교양서로서 널리 읽혀졌다. 고려본의 존재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130권 전체가 간행되기도 하고, 그 중 일부만을 뽑아서 만든 선집본이 간행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한서』와 어우러져 전혀 다른 하나의 책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전기의 경우 국가의 주도하에 경자자본, 전기초주갑인자본, 후기초주갑인자본 등 금속활자로 3차례나 전질의 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기』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금속활자본 『사기』가 일반 사인의 서가에까지 비치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이에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간행을 하되 간행 비용을 절감하고 독서인의 기호에 맞게끔 선집본 형태로 변형, 간행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으며 조선의 인쇄물과 인쇄기반이 파괴되면서 『사기』 역사화마의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간본의 제작이 요구되었다. 17세기 초 이러한 상황을 겪고 만들어진 『사기』 간본은 조선전기 간본과는 전혀 다른 체제로 변화하였다. 임진왜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방면에 걸쳐 국가의 제반시스템을 철저히 붕괴시켰지만, 중국인들과의 지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곳의 학문과 사상이 물밀 듯이 유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명간본 『사기』가 조선에 유입되어 새로운 『사기』 텍스트들이 출현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글에서 논의할 『사찬』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30권으로 구성된 사마천의 『사기』가 아니라 일부만을 선정해 놓은 선집본으로, 17세기 전반기 중앙인쇄기구였던 교서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출판의 공백기에 교량적인 역할을 한 훈련도감이 판매를 위시하여 간행했던 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중국본의 조선 유입과 변용 및 당대 중국인의 사상과 학술의 수용과 전파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그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조선에서 『사기』가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었는지에 관한 연구,¹⁾ 훈련도감자본 연구²⁾가 진행되었지만, 여러 사기류 서적 중의 하나 또는 여러 훈련도감자본 중의 하나로 간략히 다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은 1612년 훈련도감에서 편찬하고 간행했던 『史纂』의 출판 문화사적 의의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³⁾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사찬』 자체에 관한 소개로서, 조선본 『사찬』의 출현

1) 이성규, “朝鮮後期 士大夫의 『史記』 理解,” 『진단학보』 74(1992), 81-146. ; 이현호, “조선 후기 『사기』 비평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35. ; 김소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2.8).

2) 김수형, “훈련도감자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8). ; 우정훈, “훈련도감자본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 송정숙,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 『서지학연구』 42(2009. 6), 267-298.

3) 『사찬』의 편찬에 중요한 대본이 된 중국본 『사기찬』과 『사기평립』의 특징과 체제, 이들 중국본과 조선본 『사찬』의 영향관계에 관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배경, 『사찬』의 편찬과정과 체제, 『사찬』의 대본이 되었던 중국본 『사기찬』과 『사기평립』의 수용방식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사찬』의 간행을 통해 알 수 있는 전반적인 출판문화에 관한 고찰로, 명간본의 유입과 이를 토대로 조선에서 독자적 텍스트가 출현한 점, 중국에서 유행한 복고주의 학풍의 도입에 따라 조선 고문학파가 출현하고 지연과 학맥 및 연혼 관계를 토대로 확대되어 간 점, 17세기 초 훈련도감의 서적간행이 인쇄문화의 암흑기에서 서적의 보급과 유통에 기여한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중국본의 유입과 『사찬』의 간행

2.1 『사찬』의 출현 배경

조선에서의 『사기』 간행은 기본적으로 중국본을 저본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본의 대상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다. 예를 들어 1425년(세종 7)에 간행된 현전하는 조선 최초의 『사기』 간본인 庚子字本은 元刊本인 彭寅翁本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이 경자자본을 토대로 2종의 초주갑인자본이 간행되는데, 하나는 성종연간인 1474-1484년의 전기초주갑인자본, 다른 하나는 중종연간인 1506-1544년의 후기초주갑인자본이다. 이들 역시 팽인용본 계열이 된다. 팽인용본은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방각본의 일종으로 텍스트에 많은 결함이 지적되고 있는데, 경자자본과 초주갑인자본에는 이러한 결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텍스트의 완전성 유무는 차치하고 이 시기에 제작된 금속활자본은 널리 배포하려는 목적이 아닌 왕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용도 또는 고위 관료들에게 반사하기 위한 용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간행하되, 판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 ‘열전’을 뽑은 선집본 형태로 간행했다. 이는 『고사촬요』 팔도정도 내 책판목록에 황해도 해주에서 『사기열전』이 간행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

그런데 이마저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모두 일실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書籍校印都監에서 아뢰기를, “예조의 계사에, ‘이번에 遼東都司가 요청한 『통감』과 『사략』 각 한 질씩을 교서관으로 하여금 동지사가 들어가는 편에 부쳐보내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계하하셨습니다. 그런데 도감에는 난리를 겪은 뒤로부터 풀이 말이 아니어서 평소 서적이 거의 없고, 『통감』과 『사기』 등의 책은 남아 있는 것이 한 권도 없으며, 달리 나올 곳도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황궁하게도 감히 여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통감』과 『사기』 등은 우리나라의 서적이 아니다. 난리를 겪은 뒤로 남은 것이 없다는 뜻으로 사실대로 회답하도록 하되, 만약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면 아무

4) 현재 경북 봉화의 충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으로 추정된다.

관사에 저장해 둔 책을 요량하여 보내도록 하라.”하였다.⁵⁾

위 인용문에서 『사기』와 『통감』 등 역사책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 말과 같이, 당시 관사를 막론하고 문적과 활자가 철저히 소실되고 약탈되었으며, 인쇄출판기능을 담당했던 교서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인쇄 출판을 위한 제반조건들조차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寒岡 鄭述(1543-1620)의 경우에는 난리를 겪으면서 서책이 일실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젊었을 적에 간혹 禮文을 엿보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강구했던 것은 시골 마을에서 선비들 사이에 논의되었던 보편적인 儀節일 뿐이었으므로 變禮나 큰 의절 같은 것은 감히 알지 못합니다. 난리를 10년 동안 겪은 뒤에는 남아 있는 禮書가 한 권도 없어 예에 관한 공부를 일체 폐해 버림으로써 일개 무식한 사람이 되었는데, 영감의 물음을 받고 보니 황공한 나머지 진정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⁶⁾

宋時烈(1607-1689)의 문인이자 閔維重(1630-1687)의 형인 閔鼎重(1628-1692)은 李廷圭(1587-1643)의 묘지명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 이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에 책이 일실된 상황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엿볼 수 있다.

왜란 이후 서적이 없어 항상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책을 빌렸는데, 곧바로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았다. 그 어려움이 이와 같았는데도 오히려 결코 게을리하거나 그만두지 않았다.⁷⁾

조선왕조는 건국과 동시에 유교적인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문물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명으로부터 각종 선진 문물을 들여왔다. 그러한 문물교류에는 서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조선전기에는 명의 해금정책으로 대외 접촉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공무역체제 하에서 사절의 왕래를 통해서만 가능했다.⁸⁾ 이러한 제한적 교류 속에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하여 사신, 문인, 明軍 및 遊民 등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들의 문화와 사상이 담긴 서적을 통해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중국 사신이 머물던 홍제원 근처에 있던 愍忠壇에서 어느 중국인이 책자를 팔고자

5)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8년(1616) 8월 4일.

“書籍校印都監啓曰: “禮曹啓辭 ‘今此遼東都司求請『通鑑』·『史略』各一件, 令校書館, 順付於冬至使’事, 啓下矣. 都監, 自亂後無形, 素罕書籍, 『通鑑』·『史記』等冊, 無一卷留儲, 他無出處. 何以爲之? 惶恐敢稟.” 傳曰: “『通鑑』·『史記』, 非我國書籍也. 以亂後無有之意, 直爲回答, 如曰不可不送, 則某司所儲冊量送.”

6) 『寒岡先生文集』卷3 少時雖或竊窺禮文 答禮曹判書(戊申).

“而所講究者, 不過村巷士夫間尋常儀節而已. 如變禮大節, 則非所敢曉. 亂離十載, 無一卷禮書. 一切屏廢. 兀然爲無所識知之人. 伏承台教, 第增惶懼.”

7) 『老峯先生文集』卷9 墓碣銘 承旨李公墓碣銘(并序).

“亂後無書籍, 常從人竊借, 旋被督還, 其艱如是, 而猶不敢怠廢也.”

8) 전순동, “명조 초기 조선과의 문물교류,” 『중북사학』 13(2002), 142.

하여 小劍을 주고 바뀐 사실'에서와 같이 사신, 문인, 명군, 유민 이외에도 중국상인이 조선에 들어와 중국서적을 판매하기도 하였다.⁹⁾ 경위가 어찌되었든 상당량의 중국본이 유입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명말에 대폭 늘어난 인쇄물의 수량을 들 수 있다. 오오키 야스시의 연구에 따르면 송대부터 명말까지 출판 수량 3,094점 중에서 65%를 차지하는 2,019점이, 가정·만력에서 송정에 이르는 약 100여 년 사이에 출판되었다고 했듯이¹⁰⁾ 명말간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16세기 고도로 발전한 중국의 유통망은 거의 동시대의 서적을 조선으로 전파시켰고 양국 서적전파의 시간차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다.¹¹⁾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란기에 명의 관료와 학인 및 군관들을 매개로 각종 명간본이 조선에 유입되었고, 그 안에 담겨진 그들의 사상과 문화도 함께 전래되어 국내 학자들에게 소개되었다.

명말간본의 증가와 교류를 통한 인쇄본의 유입 이외에도 『사기』를 간행했던 직접적인 사유는 차천로(1556-1615)가 '經傳과 史書を 판각하기 위해 장인을 모집하고 성금을 공모하는 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사방에 명을 내린 것은 책을 구하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인데 날마다 만 장의 책을 찍어 내려면 모릅지기 판각하는 工人이 있어야 한다. 그 계획은 비록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여러 사람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 어찌 布施라고 말하겠는가. 판각을 하기 위해서이다. 삼가 생각건대, 8년간 전쟁을 치르다 보니, 삼변에 왜구가 웅거하였다. 이에 3천 리의 고국이 오래전부터 戒馬의 각축장이 되었으니, 長安의 백만 가호 중에 그 누가 종이 쓴 책을 햇볕에 쬐어냈는가. (중략) 이는 정말로 兵火가 땅을 쓸듯이 휩쓸어 典籍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經傳과 史書を 널리 배포하려면 글자를 조각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동으로 정교하게 글자를 주조하기가 대쪽에 새기는 것보다 쉽지는 않지만 목판에 새기려면 견고한 黃楊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중략) 한 글자로 만 본의 책을 간행할 수 있으므로 후년에까지 영구히 판본을 간직해 둘 것이다. 나라에는 茂陵의 서적을 모아 두고 가정에는 講肆의 글자를 전할 것이다. 詩書의 학습이 융성할 것이고 絃誦의 소리가 양양할 것이다. 이것은 통발과 울무와 같은 것이니, 현실과 거리가 먼 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다만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오직 있는 힘을 다하여 마음에 잊지 말고 각각 형편에 따라 보시함으로써 판각하는 공을 이루고 이어 사람들이 송독하는 데 이롭게 해 주었으면 한다. 자식에게 한 권의 경전을 가르쳐 모두 韋賢의 학문을 지키게 하고 만 권의 글을 읽으려고 앞을 다투어 寶笈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 또한 족히 중흥을 장식할 수 있으니, 어찌 작은 보탬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¹²⁾

위 글에서 차천로가 전란으로 서적이 인멸된 상황에서 경전과 사서의 간행이 특히 시급하며, '經傳과 史書を 널리 배포하기 위해서는 글자를 조각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여겼듯이 당시의 여건 상 목활자를 조각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아울러 목활자본의 효용은 바로 '한 글자로 만 본의 책을 간행할 수 있으므로 후년에까지 영구히 판본을 간직'하는데 있다. 다만

9) 『朝鮮王朝實錄』 宣祖29年 1月 16日 癸未(條).

10) 오오키 야스시 지음, 노경희 옮김,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서울: 소명출판, 2007), 30.

11) 황지영, "중국서적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출판과 藏書문화의 신국면," 『다산과현대』 3(2010), 13.

12) 『五山集』 續集 卷4 雜著(한국고전번역원 DB 번역문 인용).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교에서 普施하듯이 각자의 형편대로 간행비용을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차천로는 이러한 역사를 토대로 전란으로 일실된 서적을 복구하여 학문의 중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사기』 간본의 멸실, 그 시기 중국 내 명간본 사기류 서적의 출현과 유입, 시급히 역사서적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조선본 『사찬』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2.2 『사찬』의 편찬과 체제

다음은 이항복(1556-1618)이 남긴 ‘史纂後跋’로, 『사찬』의 간행 사실은 물론 훈련도감의 인쇄사업과 방각본의 출현 시점에 관한 논의를 언급할 적에 자주 인용되는 글이다.

『韓集(韓昌黎集)』의 인출을 이미 끝내고 때마침 太廟에 일이 생겨 내가 齋房에 앉아서 受戒하고 있었는데, 員外 趙緯韓이 나를 찾아왔기에 그와 함께 『한창려집』에 이을 마땅한 서책을 걱정했다. 그러자 조 원외가 『사기』를 간행하라고 권하고서 평소에 자신이 뽑아 놓은 열전을 가져와서 보여주었는데, 相國 李德馨이 이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家藏된 한 本을 出捐해주었고, 海平 尹根壽도 이 일을 찬성했다. 또 王弇州의 『사기찬』 17권을 模楷하게 하고, 書信을 서로 주고받으며 거취를 토론하여 결정했다. 임주가 抄한 것은 全選과 抄選의 구별이 있으므로, 지금 전선에서는 53편을 취하고, 조선에서는 20편을 취하니 모두 73편이었다. 후자가 『조선』은 너무 세세하지 않을까 의심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牛羊의 고기를 썰어서 접시에 놓는 것이 비록 통째로 놓는 것 만은 못하나, 金을 가려내는 데는 반드시 모래를 일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또한 文苑의 한 例인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古수의 註疏를 刪定하는 책임은 일체 斯文 車天輅에게 위임하였는데 모두 10개월에 걸쳐 책을 완성되었으니, 비록 완벽한 작품은 될 수 없을지라도 또한 학문의 바다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은 될 것이다.¹³⁾

201자에 불과한 위 발문 안에는 ①사찬의 편찬시기와 간행시기, ②조선본 『사찬』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 ③『사찬』의 저본이 된 중국본의 체제와 편찬자 ④『사찬』의 주석을 산정한 인물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압축적으로 담겨있다. 다시 말해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전쟁의 여파로 서적과 활자가 일실, 약탈되었던 그 때로부터 약 15년 후인 161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조선전기 중앙의 거점인쇄기구였던 교서관을 대신하여 인쇄업무를 담당했던 훈련도감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이항복·조위한(1567-1649)·이덕형(1561-1613)·윤근수(1537-1616) 등 당대 정치·학문과 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인물들이 모여, 後七子를 대표하는 王世貞(1526-1590)이라는 이름이 제시된 중국본 서적과 그들이 소장했던 각종 사기관련 서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선식으로 탈바꿈한

13) 『白沙先生集』卷2 史纂後跋.

“『韓集』之印既已, 時有事于太廟, 余受戒坐齋房. 趙員外緯韓來見余, 余與之虞繼韓之宜, 趙勸印『史記』, 因以平日所自抄傳來示余. 李相國德馨聞而樂之, 出捐家藏一本以畀之, 尹海平根壽從而贊成之. 又以王弇州『史記纂』十七卷, 使爲模楷, 移書往復, 論定其去就. 弇州所抄, 有全選·抄選之別, 今於『全選』得五十三, 『抄選』得二十, 通共七十有三. 或疑『抄選』太碎, 余曰: “折俎雖不及體薦, 揀金必待淘沙. 是亦文苑一例, 何害焉.” 其古今註疏刪定之責, 一委之車斯文天輅, 凡十閱月而書克成, 雖不能備全大成, 亦學海中一鉤.”

『사찬』이 간행되었다.

『사찬』의 편찬은 『한집』 즉, 『주문공교창려선생집』의 인출이 완료되었던 1610년에 시작되었다. 『창려집』은 경오자체로 찍힌 최초의 훈련도감자본으로, 훈련도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屯田이 혁파됨에 따라 재정 마련의 일환에서 시도했던 첫 인쇄사업이었다.¹⁴⁾ 훈련도감에서 이 문집을 간행하게 된 경위를 밝힌 이항복의 ‘사찬후발’에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훈련도감의 둔전 경영이 어려웠던 때에 군졸들을 동원하여 安平大君의 필체를 본뜬 목활자를 만들고 책을 인쇄하여 파는 방법으로 군비를 충당하였던 사정과 이로써 소실된 서적들을 보충할 수 있었던 정황을 설명하고, 또 선비들이 과거시험의 교재나 질수가 많지 않은 서적만 선호하고 옛 경서나 주석이 많은 책들을 피하는 것을 개탄하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¹⁵⁾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훈련도감자본(古 3424-4A) 『창려집』은 ‘尙古, 景稷, 李, 石門居士, 醉弼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詞賦와 서예에 능했던 문신 이경직(1577-1640)의 수택본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사찬』을 편간할 무렵에 홍문관 수찬, 병조 좌랑 등을 역임했고, 한편으로는 이항복과 金長生(1548-1631)의 문하생이었기에 이 책을 편간할 당시에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항복은 1610년 『창려집』의 인출을 끝낸 직후에 후속으로 발간할 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조위한이 『사기』를 간행할 것을 권했고 이덕형과 윤근수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찬』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책의 전체적인 체제는 이항복, 조위한, 이덕형, 윤근수가 구성했고, 주석의 산정은 차천로가 담당했다. 이렇게 편찬된 『사찬』은 명대의 능치륜이 저술한 『사기찬』과 『사기평립』이라는 명간본을 저본으로 하되,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체제상의 변화는 『사기찬』을 모방하여 『사찬전선』 53편과 『사찬초선』 20편으로 분류하되, 『사기찬』에서는 전선과 초선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사찬』에서는 전선과 초선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유통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8세기 무렵에 이르러 『사찬초선』의 경우에는 편수에 변화가 생기는데, 예컨대 4편(시황본기, 율서, 공자세가, 사마상여열전)이 누락된 채 목판본으로 유통된다. 다음으로 내용상의 변화는 명간본 『사기평립』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는데, 백문은 그대로 둔채로 관련 三家註는 대폭 산삭하였으며 『사기평립』에 수록된 명인의 논평 중 극히 일부만을 절략한 채로 남겨두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석의 산정은 차천로가 담당했는데, 그는 당대 문단의 거두로 칭송되던 인물로 명대 학자들이 남긴 각종 논평이 추가됨에 따라 삼가주만 수록되어 있었던 원래의 『사기』보다도 더 방대한 분량을 갖추게 된 『사기평립』을 본인의 것으로 흡수한 후 가장 필요하다고

14) 『朱文公校昌黎先生集』 朱文公校昌黎先生集跋(奎中 1795).

“都監自罷屯田, 思所以足食者, 必毛舉而錐撫之, 無遺間印諸書, 鬻之爲軍儲, 後得安平大君所 寫印本數書, 塌刻爲活字圓轉可愛, 首印是書. 於是, 薦紳好事者爭奔走焉. 遂斤賣消息時, 權其贏, 積其奇, 羨庫人告裕, 使衆工稍食, 皆仰機利以未取之, 猶有餘息, 是何但養兵之利, 亦寓文 於武, 相因而相長之者也. 獨恨其所印多科程小秩, 以求易售, 至於古經大傳, 視若素書隱文, 俗 士掉臂, 故有未遑焉. 嗟乎趨時取銜, 豈惟書也. 後此者若循是而張大之, 十年之後, 東方書籍將 彬彬焉汗牛. 是書之先特江源之濫觴也. 後之君子勉之. 都提調……鰲城府院君李恒福謹跋.”

15) 당윤희, 오수형, “朝鮮時代に 간행된 韓愈 詩文集 판본 연구,” 『중어중문학』 47(2010), 365.

여긴 주석만을 선택하여 『사찬』에 아주 간략하게 남겨두었다.¹⁶⁾

2.3 중국본의 수용과 그 특징

방대한 양으로 인해 대중적 보급 자체가 더뎠던 『사기』는 임란을 겪으면서 간행 자체는 더욱 위축되었다. 1613년본 『고사촬요』 하권 『서책시준』은 당시 서사에서 판매된 서적을 가격을 전한 34종의 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사기』는 보이지 않으니, 임란 전의 책판은 대부분 전란 중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책판의 유실 또는 소실로 인해 기존 판본의 『사기』 보급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기』가 널리 보급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사기평립』의 유입이다. 『사기평립』의 발간은 명대 전후철자의 ‘문필진한’의 논리와 왕세정의 『사기』 존숭을 기반으로 하여 『사기』가 산문의 글쓰기 및 비평과 관련한 핵심텍스트로 위치가 격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¹⁷⁾ 중국본 『사기평립』은 당시 『사기』 연구자들이 난립하여 제각자 평점서들을 만들려는 배경 하에서 능치룡이 여러 명가들의 평점을 취집하고, 그 학술의 포용성과 후대 한대 사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왕세정은 사마씨의 학문을 계승하고 발양한 것은 오직 능씨의 『사기평립』이라고 극찬하였다.¹⁸⁾

이러한 능치룡의 『사기평립』과 『사기찬』을 저본으로 출현한 『사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먼저 체제면에서는 상기한 중국서적은 물론 조위한과 이덕형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종합하여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찬후발’의 내용, 중국본 『사기평립』과 『사기찬』 및 조선본 『사찬』의 체제비교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용 즉, 주석의 산정과 관련해서 삼가주 이외에도 명대 학자들의 평론을 선정한 후 압축했다는 데 있다. 『사기평립』에는 총 147명의 학자들의 평론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명대 인물인 양신·당순지·모곤·동빈·능약언·능치룡의 논평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내용적으로는 감상평, 수사법, 독서법 등과 관련되어 있다. 선정된 논평자를 분석해보면 양신은 전철자였고, 당순지·모곤·동빈 등은 당송파였다. 즉 『사찬』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한고문파와 당송파를 균형적으로 선정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차천로가 삼가주의 내용을 체득하여 새롭게 논평을 전개한 점을 들 수 있다.¹⁹⁾

16) 『사찬』 대문과 주석의 편찬방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소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2.8), 126-140 참조.

17) 이현호, “조선후기 『사기』 비평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35.

18) 朱志先, “凌稚隆『史記評林』探析,” 『古籍整理研究學刊』 4(2009. 7), 92-93.

19) 김소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2.8), 140 참조.

3. 『사찬』 간행의 출판문화사적 의미

3.1 명간본의 유입과 독자적 텍스트의 제작

중국인이 저술, 편찬한 조선본의 저본을 찾는 일반적인 방법은 해당 조선본의 간행시기를 파악하여, 이보다 앞서 간행된 역대 중국본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형에 따라 중국본을 분류·체계화한 후, 이 중 조선본과 가장 유사한 중국본을 판별·선정하여 두 판본의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훈련도감에서는 『사찬』에 앞서 『무경총요행군수지』를 갑인자체 목활자본으로 간행했는데, 이 책의 저본은 唐富春本이다. 이러한 사실은 ‘唐富春(明) 校梓’라는 저자표시와 권말에 있는 정위정의 발문(1599년)을 통해 알 수 있다.²⁰⁾ 중국본을 저본으로 간행한 서적은 처음에 중국본의 판형이나 체제를 간직하는 경우가 많지만,²¹⁾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를 반영하는 판형과 서체로 변해가기도 한다.

그런데 『사찬』은 이러한 경향성과는 달리 시기적으로 멀지 않은 때에 간행된 명간본을 토대로 편찬·간행했음에도 판형은 물론 내용과 체제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었기에 ‘史纂後跋’이라는 이항복의 글이 없었더라면 어떠한 중국본을 저본으로 삼았는지를 판별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체제만 비교해보아도 중국본을 저본으로 하되 조선식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

『사찬』이 편간되기 이전에도 『사기』와 『한서』 텍스트를 대상으로 조선 독자성을 지닌 서적이 출현했는데, 이 책은 1607년(선조 40)에 簡易 崔筮(1539-1612)이 편찬하고 훈련도감에서 갑인자체로 찍어낸 『한사열전』이다. 그러나 『한사열전』은 『사기』나 『한서』의 전체 내용이 아닌 열전을 대상으로 선별한 서적이었고, 漢代의 역사를 통찰하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한대의 고문을 가르치려는 목적하에서 편찬된 경향이 짙다. 이 외에 1653년(효종 4) 이전인 17세기 중반 무렵에 『사한일통』이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사기』와 『한서』에서 88편을 뽑아서 만들어진 고문학습서이다. 총 88편 중 49편이 『사기』에서 선정되었다. 『사한일통』의 사기 부분은 『사찬』을 재편집한 것으로, 이 책을 통해 당대 『사찬』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찬』은 독자를 배려하여 편찬한 측면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사찬후발’의 말과 같이 하나의 『사기찬』이라는 책 안에 전선과 조선 — 전선은 내용 전체를 수록한 것이고, 조선은 주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에 관련된 문장만을 뽑아 놓은 것을 말한다 — 이 뒤섞여 있는 점을 보고 『사찬전선』과 『사찬조선』으로 구분한 점에서도이다. 또한 체제면에서는 명간본 『사기찬』의 편찬 방식을 활용하되

20) 당부춘은 남경에 있던 唐對溪가 운영하던 부춘당 서방[서점]을 말한다(박계화, 장미경, 『명청대 출판문화』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9), 74).

21)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로 『이정전서』의 1498년도 명판본과 이를 토대로 번각한 16세기 조선 목판본의 판형 비교를 참조할 수 있다. 이유리, “明版本 『二程全書』의 17세기 조선 및 일본에서의 수용 양상 연구,” 『서지학연구』, 80(2019), 394.

답습이 아닌 조선식으로 체제를 변경했고, 내용면에서는 명간본 『사기평립』을 참조하되 차천로가 삼가주 및 명나라 학자들의 논평을 선별·요약했다. 『사찬』의 대본은 중국본 『사기찬』 한 종이 아닌 각종 평어가 수록된 방대한 양의 명간본 『사기평립』까지 습득하여 자기화를 거쳐 독자적으로 제작된 책이었다.

이 시기 독자적 변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책은 『사찬』의 후속사업으로 훈련도감에서 인출한 『소학제가집주』이다. 처음에 이이(1536-1584)가 편찬했고, 이후 1694년에 숙종의 어제서문이 첨부된 간본과 언해본의 편찬(1666년)과 간행(1669년)이 이루어졌다.²²⁾ 훈련도감자본 『소학제가집주』의 간행도 『사찬』의 간행을 주도했던 이항복이 앞장섰는데, 그의 문집을 통해 『소학』의 조선 전래 내력과 간행 경위를 유추할 수 있다.

성화 연간에 淳安程氏라는 이가 濟南에서 河水를 다스릴 적에, 제남에는 名士들이 많아서 찬란하게 伏生의 遺風이 있었다. 그래서 인하여 그 무리들과 함께 날마다 『소학』을 강론하면서 辨質하고 訂正하여 註疏 6권을 만들어서, 上國에 조회 간 조선의 사신에게 주었으므로,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학』을 흔연히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로는 何氏·吳氏·陳氏 등의 說이 점차로 海外에 퍼져 나왔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좁은 견해에 얽매어 선입견만 고수하고 변통할 줄을 몰라서 程氏의 설만을 존승하고 믿으니, 諸家の 말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고 사리가 혹 말살되는 곳도 있음을 자못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이 점을 걱정하여, 망녕되이 여러 설들을 참고하고 교정하여 지취를 회통시켜서 考閱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하루는 鐵原府使 金長生이 찾아왔으므로 인하여 이 사실을 언급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粟谷이 이미 먼저 주관하여 처리해 놓았는데, 그대가 어찌 거듭 노고를 할 것이 있겠는가.”하고, 마침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소학』 한 질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래서 내가 붓을 놓고 그 일을 중지하며 말하기를, “또한 좋지 않겠는가. 이는 참으로 스승은 편안하게 지도하여도 학생의 진취도는 갑절이나 되는 셈이로다.”하였다. 그리고 인하여 이를 『사찬』에 이어서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하게 하는 바이다.²³⁾

이 글을 보면 이항복은 程氏 일변도의 『소학』 주석서만 고수하는 현세대를 비판하는 한편, 제가의 설을 고열하기 편리한 새로운 책자를 구상함으로써 『소학』의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철원 부사였던 김장생이 이미 율곡 이이가 그러한 작업을 했다는 정보를 이항복에게 알려주었고, 아울러 율곡 사후에 본인에게 전해진 책자를 그에게 건네주어 훈련도감자본 『소학제가집주』가 간행될 수 있었다. 기호학파의 수장인 율곡(1536-1584)과, 그의 적전이자 17세기 기호예학의 태두였던 김장생을 거쳐 이항복에게 전해진 책자가 훈련도감자본의 저본으로 활용되었다.

이 밖의 사례로 『이정전서』를 들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책은 1476년(성화 12)에 처음 중국에서 간행된 이래로 6종에 달하는 명간본이 출현했고, 그 중 1606년(만력 34)의 명간본이 16세기 조선 목판본의 저본이 되었다. 17세기 중반에 간행한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은 중국본과 판식은 다르지만, 서문과 본문 내용을 통해서 1498년(홍치 11)의 홍치본을 따르면서도 홍치본에 없는 ‘수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만 1606년 간본을 참고했다고 추정하였다.²⁴⁾ 이항복 등 『사찬』의

22) 신정엽, “朝鮮時代 小學의 刊行과 版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126-127.

23) 한국고전번역원 DB(<http://db.itkc.or.kr/>) 번역문.

편찬에 참여했던 인물들 사후에 간행된 책이지만, 그들 사후에도 혼련도감에서는 그대로의 번각이 아닌 조선식으로의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제면에서의 독자성 이외에 『사찬』에 서와 같이 내용상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에 유입된 명간본은 체제나 내용 이외에도 활자본의 형태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교서관인서체자’ 또는 ‘운각인서체자’를 들 수 있다. 1684년을 전후하여 교서관에서 만든 이 활자는 1684년(숙종 10)에 신익성의 『낙전선생귀전록』을 기점으로 김석주의 『식암선생유고』, 김수항의 『문곡집』, 남구만의 『약천집』 등 당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명문고관들의 문집과 그들과 교류하던 인사들의 문집들이 간행되었다.²⁵⁾

3.2 명말 복고주의 학풍의 수용과 조선 고문학과와의 영향

명대, 특히 가정~만력 연간에는 복고운동의 일환으로 『사기』·『한서』·『좌전』을 대상으로 한 文史 연구 풍조가 시작되어,²⁶⁾ 정덕~융경 연간에만 『사기』 8종·『한서』 6종·『후한서』 4종이 간행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민간에서 출판한 방각본이었다. 가정 연간에 이르러 관부에서 『사기』 5종을 간행했고, 무려 20여종이 넘는 漢代 역사서가 출현했다. 같은 시기에 한대의 역사를 다룬 서적이 이토록 많이 간행된 것은 官私를 불분하고 漢史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해당 역사서를 필요로 하는 시장의 존재를 암시한다.²⁷⁾ 명대에는 古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송파나 진한고문파를 막론하고 고문에 대한 評林과 選集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온 凌稚隆(1553-1593)의 『사기평립』과 『사기찬』은 명말 복고운동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학적 성과로 『사기평립』의 경우에만 명대에 李光縉의 증보본, 種德堂, 宏遠堂, 立本堂, 翰墨林의 간본이 파생되었고, 조선과 일본에 유입되어서는 새로운 간본의 저본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조선에서는 17세기 이후에 유입되어 혼련도감자본 『사찬』과 현종실록자본 『사기평립』 및 『증정사기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사찬후발’에서 언급한 ‘王弇州’ 즉 왕세정은 李攀龍로 더불어 古文辭를 주창하여 당시 ‘李王’으로 명칭되었던 인물이다. 조선조 후기 지식인이 그가 지은 『藝苑卮言』을 시문비평서의 한 전범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왕세정의 시평을 모범으로 삼았기에 가능했다. 그는 이반룡, 謝榛, 梁有譽, 宗臣, 徐中行, 吳國倫 등과 더불어 후칠자로 활동하면서 명대 의고주의를 선창하고 조선조 후기 문단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²⁸⁾

24) 이유리, “明版本『二程全書』의 17세기 조선 및 일본에서의 수용 양상 연구,” 『서지학연구』 80(2019. 12), 395.

25) 정진웅, “조선후기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6(2007. 6), 144.

26) 陳民裕, “凌稚隆『史記評林』研究,” (博士學位論文, 國立高雄師範大學文學院國文系, 1995). 111.

27) 朱志先, “凌稚隆『史記評林』探析,” 『古籍整理研究學刊』 4(2009. 7), 89.

28) 왕세정이 지은 평론서인 『藝苑卮言』은 총 12권으로 고대~명대까지의 시문과 시문평 등을 수록한 후 사론을 추가한 책으로, 조선후기에 수용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간행된다. 이는 시공을 넘어 『예원치연』의 시문 비평을 체득하려는 수요가 많고, 조선 후기 지식인들 사이에 적지 않게 유통되었음을 의미한다(진재교,

임란시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은 조선에 주둔해있던 명군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중국의 최신 문예사조를 왕성하게 도입하고, 우리의 문학을 중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예컨대 『사찬』의 간행을 적극 추진했던 조위한은 오명제, 두상공 등 조선에 주둔해 있던 명군 장교들과 지속적인 친교를 나누었고, 오명제는 나중에 중국에 돌아가 『조선시선』을 간행했다.²⁹⁾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최립과 윤근수는 ‘古文’ 운동을 전개하였고, 윤근수가 『사찬전선』과 『사찬초선』의 편찬에 적극 찬성하면서 왕세정의 『사기찬』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편간의 중심인물로 발문을 작성한 이항복도 고문을 이해한 극소수 문형 중의 한사람으로 평가되었다.³⁰⁾

또한 윤근수와 최립은 퇴계와 미암의 학술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후속 세대로서 16세기 후반 이후로 관각의 학술 활동을 주도했다. 윤근수의 경우에는 주역교정청의 수장을 맡아 『주역전의』에 대한 구두와 음석을 확정했는데, 1601-1603년에 진행된 이 사업에 총 59명의 좌목이 확인된다. 이 책의 해석을 위해 당대의 석학들을 뽑아 교정청을 설치하여 국가적 역량을 기울였을 만큼 국가의 의지와 기대가 컸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당시 고문의 전범으로써 한유와 유종원의 산문이 많이 읽히고 국가가 나서서 보급에 힘썼던 점도 『한문토석』이 출현한 배경이 된다.³¹⁾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창려집』과 『사찬』이 차례로 간행될 수 있었다. 윤근수가 최립을 향해 ‘천추의 붓 아래 진한을 이어 전했으니³²⁾’라고 한 것과 같이 그는 최립을 진한 고문 전범으로 한 문장의 으뜸이라는 평가했고, 아울러 진한고문에 대한 존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찬』의 편찬은 명말 북고주의 학풍과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서적이 전란 이후 명인과의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조선 지식인, 특히 훈련도감에 포진해 있던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관료학자들의 학풍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사찬』 간행에 참여한 인물을 분석해보면, 이항복의 장인은 權慄(1537-1599) 장군이었고, 권율의 아우인 權恒의 사위가 우의정을 지낸 金尙容(1561-1637)이다. 김상용은 북벌을 추진했던 淸陰 金尙憲(1570-1652)의 아우이자, 성훈과 이이의 문인으로서 秋浦 黃愼(1562-1617)·體素齋 李春英(1563-1606)·月沙 李廷龜(1564-1635)·楸灘 吳允謙(1559-1636)·象村 申欽(1566-1628) 등과도 교류했다. 권율의 조부인 權勳은 덕수이씨 澤堂 李植(1584-1647)과 매제간이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근기에 모여 있었고 새로운 학문적·문학적 조류도 빨리 접하고 손쉽게 공유하였으며,³³⁾ 대체로 이이와 성훈의 문인들로 서인의 중진에 속했다. 특히 이정귀, 신희, 이식의 경우에는 한문사대가로 추앙받았던 인물들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찬』의 편간은 근기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이항복과 훈련도감 관원의 인적관계망을 따라서 서적의 보급과 학술의 공유가 이루어졌을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한국한문학연구』 41(2008), 99-100.

29) 정민, “壬辰倭亂 文人知識人層의 明軍 交遊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19(1996), 151-186.

30) 이성규, “朝鮮後期 士大夫의 『史記』 理解,” 『진단학보』 74(1992), 109.

31) 신영주, “『한문토석』에 나타난 윤근수와 최립의 현토 담론에 관하여,” 『한문학보』 20(2009), 231-232.

32) 『月沙集』 卷9 東槎錄上 「次東臯崔立之(岏) 韻」.

33) 김우정, “16~17세기 近畿 지역 서인계 문인의 교류와 古文辭,” 『한국한문학연구』 56권(2014. 12), 207.

가능성을 보여준다.

3.3 훈련도감의 서적 보급과 인쇄문화사적 위상

인쇄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사찬』이 가지는 위상은 17세기 훈련도감의 서적 출판이 당대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맥을 같이 한다. 임란 이후 임시적인 군사기구로서 설치된 훈련도감은 전란 후 침체되어 있던 도서관의 인쇄출판기능을 대신하여 멸실된 서적의 보급을 위해 당대 최고의 지성이 모여 신속하게 서적을 보급하려 했다. 대략 1600-1650년 전후로 비록 짧지만 이 기간 훈련도감의 왕성한 인쇄활동은 이후의 서책 간행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목활자 인쇄는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그 방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18세기 후반 이후 전국적으로 목활자 인쇄에 의한 출판이 성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³⁴⁾

『사찬』이 편간되었던 광해군대는 임진왜란의 여파로 서적 자원이 모두 소실되었고 심지어 국정 참고용도서마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典禮를 상고할 일이 있으면 매년 실록을 고출했다. 사회적으로는 전란으로 성리학적 질서가 해이해져 있었고 기근과 전염병이 빈발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도서의 편찬과 간행 과정은 복구기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시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었다. 특히 신간서의 편찬·간행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였고, 동시에 시대 자체가 녹아들어 있다.³⁵⁾

당시 훈련도감에서 이루어진 『사찬』의 간행은 침체되어 있던 도서관의 인쇄출판기능을 대신하여 서적 보급을 위해 진행된 인쇄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특히 17세기 목활자의 활용이 활발해진 이유는 물자부족으로 인한 경비의 절감이라는 문제로 인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았다. 17세기 목활자 인쇄 상황을 보면, 훈련도감자, 공신도감자, 내의원자, 추향당자, 나주자, 문계박자, 덕천서원 등 지방 목활자 등이 있는데 그 중 훈련도감자본이 다른 활자보다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었으며 가장 다양한 내용의 서적 인쇄에 활용되었다. 도서관이 인쇄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17세기 중반까지 훈련도감은 목활자를 제작하여 많은 책을 간행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했다.³⁶⁾

『사찬』의 편간은 훈련도감의 도제조였던 이항복의 주도 하에서 조위한과 이덕형과 윤근수 등 당대의 지성과 훈련도감의 관원이었던 金晬·黃愼·朴承宗(1562-1623)·鄭賜湖(1553-?)·崔起南(1559-1619) 등의 협력 하에 간행되었다. 그럼에도 『사찬』의 편간은 기존의 논의에서와 같이 단순히 훈련도감에서 간행된 서적의 하나일 뿐이라는 시각에 머물러 있는데, 훈련도감자본의 인쇄문화사적인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이러한 책을 간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34) 옥영정, “17세기 출판문화의 변화와 서적간행의 양상,” 『다산과현대』 3(2010), 65.

35) 김재훈, “光海君代 圖書 編纂 및 刊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77-79.

36) 옥영정, “17세기 출판문화의 변화와 서적간행의 양상,” 『다산과현대』 3(2010), 61-62.

다. 따라서 이제는 훈련도감의 인쇄물 자체에 관한 관심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인쇄사업에 참여했던 인물들과 그들을 둘러싼 주변 관계망으로 시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로 간행된 『주문공교창려선생집』, 『사찬』, 『소학제가집주』, 『고사촬요』의 경우에는 다른 훈련도감자본과 달리 편간과정이 담긴 서발문과 함께 간행을 주도한 훈련도감관원 및 교감자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중 『창려집』이 1610년에 간행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1612년에 이루어졌고, 당시의 간행은 판매를 통해서 훈련도감 운영비를 마련하거나 시급히 복구해야 할 참고도서를 구비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이들 서적의 간행자로 이항복은 훈련도감 도제조였고, 김수는 제조로서 모든 인쇄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이정구·김신원·황신·박승중·정사호·조정 등이 참여했다. 특히 매 서적에 있어서 監官 또는 監校官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인물로 해당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해서 경험과 능력을 겸비했던 신지·차천로·김연경·박희현³⁷⁾을 들 수 있다.

4. 결 론

훈련도감자본 『사찬』은 明刊本의 조선 유입과 변용 과정, 중국의 학술과 문화의 수용 양상, 당시 인쇄문화의 상황과 수준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17세기 초 조선의 출판문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전쟁의 여파로 서적과 활자가 일실, 약탈되었던 그 때로부터 약 15년 후인 1612년, 조선전기 중앙의 거점인쇄기구였던 교서관을 대신하여 인쇄업무를 담당했던 훈련도감에서, 이항복·조위한·이덕형·윤근수 등 정치·학문과 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인물들이 모여, 당대 중국의 학술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중국본 서적의 탐독과 자기화 과정을 거쳐 조선식으로 탈바꿈한 『사찬』을 간행했다.

『사찬』의 출판문화사적 의미는 명간본의 유입과 독자적 텍스트의 제작, 명말 복고주의 학풍의 수용과 조선 고문학과와의 영향, 훈련도감을 통한 서적의 보급과 인쇄문화사적인 위상을 들 수 있다.

37) 박희현의 경우 『고사촬요』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의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는 李爾瞻이 작성한 序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攷事撮要一書，最便於攷閱典故，不可一日無者，而兵燹之餘，板本散失，雖日用尋常之事，皆無所取徵，豈非覽者之病也。訓鍊都監都提調左議政臣李恒福等，欲用都監活字而印之，以廣其布，第紀年止於萬曆乙酉，而丙戌以後二十有七年則蓋闕如也。謂承文院檢校臣朴希賢曰，久掌事大之文，採摭有據，幸續撰之，以備欠闕，希賢遂抄院藏膽錄，次第成編。記事之例，一倣其舊，而壬辰以來，比舊加詳者，以天朝恤小之恩，我國事大之誠，不可不悉錄，而昭示於將來故耳。舊本所載各樣事件，頗務簡要，而未免有所缺漏大要。以事大爲主，則進貢·方物·中原·貢器·大明官制等件，皆所當知而不可遺者，如選擇，則凡有作爲，必須涓其吉凶，其他若法制，若雜方，亦不可不知，故加鈔其若干條添入於卷中，至於八道冊板，今則燒燬，故並皆刪去，以土產代之。凡三閱月而編始成。先賜睿覽，特命大提學臣李廷龜，更爲刪潤而定之，若倭情及天兵東征始末，則領議政臣李德馨又加斤正，卽還入啓而印之。夫是書也，故學官臣魚叔權所蒐集，而希賢增添撰述之功，其亦勤矣。”

예컨대 『사찬』은 중국본 『사기찬』과 『사기평립』을 참조하여 독자적 체계와 주석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명말 복고주의 학풍과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서적이 전란 이후 명인과의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조선 지식인, 특히 훈련도감에 포진해 있던 당대 최고의 지성과 그들이 거주하던 공간과 인적 관계망을 따라 『사찬』의 보급과 학술의 공유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끝으로 인쇄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사찬』이 가지는 위상은 17세기 훈련도감의 서적 간행이 인쇄문화에 끼친 영향과 맥을 같이 한다. 임란 이후 임시적인 군사기구로서 설치된 훈련도감은 전란 후 침체되어 있던 도서관의 인쇄출판기능을 대신하여 멸실된 서적의 보급을 위해 당대 최고의 지성이 모여 신속하게 서적을 보급하려 했다. 그 중에서도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은 1610년에 간행된 『한창려집』을 제외하면 모두 1612년에 이루어졌고, 판매를 통해 훈련도감 운영비의 마련 또는 참고용 서적의 시급한 복구를 위한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이 글은 중국본의 유입과 변용 양상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현재 전통시기 동아시아 서적의 유통을 주제로 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연구과정에서 판본 조사와 판본간 상호대조를 통하여 계열을 상정하고 이후 판본별 교감 연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로 한 종 이상을 연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형태에 치중한 판본학적인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밝힌 명간본 『사기찬』과 『사기평립』 및 조선본 『사찬』의 판본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초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출판문화사적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사찬』이라는 책 자체와 이 책의 간행을 둘러싼 인물들의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향후 이 연구를 단초로 판본학적인 연구를 넘어 중국본 서적을 조선에서 수용하고 변용하는 모습을 체계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심도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派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 18(1995). 289-305.
- 김광년. “金錫胄의 『古文百選』 편찬과 唐宋派의 수용.” 『동양한문학연구』 20(2004). 87-109.
- 김소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2.8.
- 김수형. “훈련도감자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8.
- 김우정. “16~17세기 近畿 지역 서인계 문인의 교류와 古文辭.” 『한국한문학연구』 56권(2014. 12). 193-223.
- 김재훈. “光海君代 圖書 編纂 및 刊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 당윤희, 오수형. “朝鮮時代に 간행된 韓愈 詩文集 판본 연구.” 『중어중문학』 47(2010). 351-381.

- 박계화, 장미경. 『명정대 출판문화』.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 송정숙.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 『서지학연구』 42(2009. 6). 267-298.
- 신영주. “『한문토석』에 나타난 윤근수와 최립의 현토 담론에 관하여.” 『한문학보』 20(2009). 225-250.
- 신정엽. “朝鮮時代 小學의 刊行과 版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 심경호. “宣祖 光海君朝의 韓愈文과 史記 研鑽에 관하여 - 韓愈文과 『史纂』의 懸吐와 註解를 중심으로.” 『서지학보』 17(1996). 3-39.
- 오오키 야스시 지음, 노경희 옮김.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서울: 소명출판, 2007.
- 옥영정. “조선 使臣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서지학연구』 61(2015. 3). 5-29.
- 옥영정. “17세기 출판문화의 변화와 서적간행의 양상.” 『다산과현대』 3(2010). 51-77.
- 우정훈. “훈련도감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2.
- 이성규. “朝鮮後期 士大夫의 『史記』 理解.” 『진단학보』 74(1992). 81-146.
- 이유리. “明版本 『二程全書』의 17세기 조선 및 일본에서의 수용 양상 연구.” 『서지학연구』 80(2019. 12). 381-401.
- 이현호. “조선후기 『사기』 비평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 전순동. “명조 초기 조선과의 문물교류.” 『충북사학』 13(2002). 125-153.
- 정진웅. “조선후기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6(2007. 6). 123-150.
- 정민. “壬辰倭亂 文人知識人層의 明軍 交遊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19(1996). 151-186.
-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한국한문학연구』 41(2008). 73-114.
- 朱志先. “凌稚隆『史記評林』探析.” 『古籍整理研究學刊』 4(2009. 7). 89-93.
- 陳民裕. “凌稚隆『史記評林』研究.” 博士學位論文. 國立高雄師範大學文學院國文系. 1995.
- 황지영. “중국서적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출판과 藏書문화의 신국면.” 『다산과현대』 3(2010). 7-50.
- 『寒岡先生文集』 卷3.
- 『老峯先生文集』 卷9.
- 『五山集』 續集 卷4.
- 『白沙先生集』 卷2.
- 『朱文公校昌黎先生集』 朱文公校昌黎先生集跋(奎中 1795).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접속일 2020.2.17.]
-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접속일 2020.2.17.]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2.17.]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en, menyu. 1995. *A Study on Ling Zhi-Long's Shi Chi Ping Lin*. Doctoral Thesis. National Kaohsiung Normal University.
- Dang, Yun Hui, & Oh, Su Hyong. 2010. "The study on the garlands of Han-Yu(韓愈) pressed in Chosun dynasty."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7: 351-381.
- Hwang, Ji-Young. 2010. "The new Phase of the private Printing and the Collection of Books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journal of Tasan and the contemporary times*, 3: 7-50.
- Jeon, Soondong. 2002. "Cultural Exchanges with Joseon in the Early Ming Dynasty." *chungbuk historical studies*, 13: 125-153.
- Jeong, Jin-Woong. 2007. "A Research on the Anthologies Published in Gyoseogwan Inseocheja in the Late Joseon Period."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6: 123-150.
- Jeong, Min. 199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nd Meaning of Ming-gun in the Munjia-style People of the Imjin War."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19: 151-186.
- Jin, Jae Kyo. 2008. "Exchange and Circulation of Books and Knowledge in East Asia."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41: 73-114.
- Kang, Myeong-kwan. 1995. "accept of uigomunpa and Establishment of Jinhangomunpa in late 16th and early 17th."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18: 289-305.
- Kim, Jae Hoon. 2006. *A Study on the Book Compilation and Public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in Chosŏn Dynasty*. Master's degree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Kwang-Nyeon. 2004. "The significance of compiling 『古文百選(One hundred articles as a classical literate style)』 and of accepting the theory of a group of writers who followed Tang-Song literature by Kim Seok-Joo." *Dongyang studies in Korean Classics*, 20: 87-109.
- Kim, So Hee. 2012. *A study on inflow and edition of Chinese printed 『Shiji』 and 『Hanshu』*. Doctoral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Soo-hyung. 1978. *A Study on the Hoolyon Taga Ja*. Master's degree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Woo Jeong. 2014. "Exchange of literary writers in the Seoin group(西人系) of Geungi(近畿) area in the 16~17th century and retro style writings."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56: 193-223.
- Lee, Hyun-Ho. 2011. *The critical study on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史記』) in the late Chosun(朝鮮) period*. Doctoral Thesis. Bu-s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Sung-Kyu. 1992. "Understanding of the Shiji of the Sadaebu in the Late Joseon Dynasty." *Jin Dan Hak Bo*, 74: 81-146.
- Lee, You-Lee. 2019. "A Study on the Acceptance Phase of Erchengquanshu-Ming Edition in Joseon and Japan in the 17th Centur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0: 381-401.
- Ok, Youngjung. 2010. "Changes of publishing culture and aspects of book publishing in the 17th century." *The journal of Tasan and the contemporary times*, 3: 51-77.
- Ok, Youngjung.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Book Collection of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and its Existing Old Books."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1: 5-29.
- Okiyasushi. 2007. *Publishing Culture in late Ming Jiangnan*. Seoul: Somyong Publishing Co.
- Park, Kye-hwa, & Jang, Mi Kyung. 2008. *Publication Culture in Ming-Qing dynasty*.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 Shin, Jung-yeop. 2009. *Publication and Printed Books of Sohak(小學) in JoSeon Dynasty(朝鮮)*. Master's degree thesis. kyungp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Shin, Young-joo. 2009. "Study on the Hyeonto(懸吐) Discourse between Yun Geun-su and Choi Lib Shown on Hanmuntoseok(漢文吐釋)." *Chinese Literature Bulletin*, 20: 225-250.
- Sim, Kyung-ho. 1996. "About the deep knowledge of Han Yu's Essay and siji in the era of Seon Jo(宣祖) and Kwang Hae Gun(光海君)." *SEOJIHAKBO*, 17: 3-39.
- Song, Jung-Sook. 2009. "Printing and Publishing of Hunryondogam in the 17th Centur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2: 267-298.
- Woo, Jung-hoon. 2019. *A study on HullyeonDogam-Ja edition*. Doctoral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Zhu, zhi-xian. 2009. "Analyzing on Ling Zhi-Long's Shi Chi Ping Lin." *Journal of Ancient Books Collation and Studies*, 4: 89-93.